

‘대호·승환·태균·근우’ 황금세대, 82년생들 마지막 불꽃

팀 중심 이끌며 KBO리그 이끄는 스타 플레이어

오승환·김태균 ‘호림’...이대호·정근우 ‘맑음’

1982년생들은 한국 야구의 ‘황금세대’로 통한다. 2000년 캐나다 애드먼턴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멤버들이라서 ‘애드먼턴 키즈’라고도 불린다.

추신수(텍사스), 이대호(롯데), 김태균(한화), 정근우(LG)가 대표적인 1982년생 애드먼턴 키즈다. 오승환(삼성)도 애드먼턴 대회에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이들과 함께 황금세대로 꼽힌다.

메이저리거 추신수를 제외하고 이들 황금세대의 주축들은 KBO리그에서 한 획을 그었다. 대표적으로 이대호는 타격 7관왕, 김태균은 우타자 통산 최다안타, 오승환은 통산 최다 세이브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정근우도 공수주를 갖춘 리그 최고의 2루수로 군림했다. 국제대회에서도 이들의 활약은 돋보였다.

제야무리 최고의 선수라도 흐르는 세월을 아쩔 수는 없다. 이들도 나이를 먹어 어스레 불혹을 바라보고 있다. 한국 나이로 서른 아홉. 진작에 은퇴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동기들이 수도룩하다. 야구를 하고 있는 동기보다 야구를 그만둔 동기가 훨씬 많다.

여전히 이들은 각 팀의 중심이며, KBO리그의 스타 플레이어들이다. 잘하면 잘하는대로, 못하면 못하는대로 미디어의 주목을 받는다. 이대호, 오승환, 김태균은 해외에서 뛰다 복귀하면서 큰 이슈가 됐고 정근우의 이적도 큰 화제였다.

선수 본인에게도, 팬들에게도 아쉬운 애기지만 냉정히 말해 앞으로 이들의 활약을 지켜볼 남은 얼마 남지 않았다. 짧으면 1~2년, 길어야 3~4년이다. 천년만년 현역으로 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은퇴에 가까워지고 있는 선수들에게 그라운드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 그 선수들을 응원하며 바라보는 팬들에게도 아쉬운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 요즘이다. 단지 그 사실을 잘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2020년 6월 9일, 1982년생 황금세대의 2명은 다시 스포트라이트 속에 경기를 치렀다. 오승환과 김태균이다.

오승환은 해외 원정도박에 따른 징계를 마치고 복귀했다. 김태균은 사령탑의 자진 사퇴 속에 팀 배터랑 중 홀로 1군 엔트리에 살아남아 최원호 감독대행 체제를 이끌어야 하는 위치다.

둘을 향하는 시선은 예전같지 않다. 오승환은 도박 이력 때문에 빛나는 커리어에 흠집이 났고, 김태균은 팀의 14연패 추락 속에 적폐로 몰리고 있다. 그나마 오승환은 삼성의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어 1할대 타율에 허덕이며 화살받이가 된 김태균보다는 낫다.

오승환은 메이저리거에서 버틸 수 있었지만 ‘힘이 남아 있을 때 국내 팬들 앞에서 하고 싶다’며 징계를 감수하고 유턴을 결정했다. 김태균은 올 시즌을 앞두고 FA 1



‘황금세대’로 불리는 1982년생 프로야구 스타들. 왼쪽부터 이대호, 오승환, 김태균, 정근우.

년 계약(총액 10억원)을 체결하며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다짐했다.

한화보다는 사정이 괜찮지만 삼성 역시 허위권에 처져 오승환이 일으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태균은 선수단의 리더로서 후배들과 함께 연패를 끊어야 한다. 남다른 각오로 올 시즌을 맞이한만큼, 다시 한 번 흔히 말하는 ‘존재감’을 보여줘야 할 때다.

이대호와 정근우는 일상처럼 시즌을 치

러나가고 있다. 이대호는 3할 타율을 유지하며 역대 결승홈런을 터뜨리는 등 여전히 롯데에서 해결사로 활약 중이다. 올 시즌을 앞두고 2차 트레이드를 통해 한화에서 LG로 팀을 옮긴 정근우도 성적은 특출나지 않지만 변함없는 허슬플레이어로 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 외에 김강민, 신재용(이상 SK), 정상호(두산) 등이 KBO리그에 남아 있는 1982년생 선수들이다. 이들은 베테랑의 장점인 풍부한 경험을 앞세워 후배 선수들의

뒤를 받쳐주고 있다. 부상자명단에 올라 있는 채태인(SK)도 1982년생 선수다.

마지막 불꽃을 피운다는 표현은 은퇴가 가까워진 선수를 수식한다. 1982년생들도 각자 다른 모양, 화력으로 마지막 불꽃을 피우고 있다.

여전히 뜨거운 불꽃도, 위태롭게 꺼져가는 불꽃도 보인다. 은퇴 경기에서 홈런 2방을 때려낸 ‘국민타자’ 이승엽 정도는 아닐지라도, 황금세대의 멋진 마지막 불꽃을 기대해본다.

화순군체육회,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대회’ 공모사업 선정

볼링·배드민턴 2개 종목 선정...지역 리그 운영·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올해 초대 민선 회장 시대를 연 화순군체육회(회장 최규범)가 대한체육회 주관 ‘2020년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대회’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호회 리그대회 종목은 볼링과 배드민턴 2개 종목이다.

화순군체육회가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대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공모사업에 180개 사업이 접수됐고, 전국 12개 시·도 39개 시·군·구의

89개 리그대회가 선정됐다. 전남 지역은 모두 12개 종목이, 화순은 볼링과 배드민턴 2개 종목이 선정돼 지역 리그전 운영비 등을 지원받게 됐다.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대회(이하 리그대회)는 종목별 지역 리그전 운영을 지원,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활성화와 생활체육 참여 인구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명준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은 “전남 도체육회, 우리 지역 생활체육회 관계자들의 의기투합, 유기적 협력이 좋은 결과로 이

어저 뿌듯하다”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우리 지역 생활체육 리그전을 정착시키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규범 화순군체육회장은 “국비 지원을 통해 리그전 운영이 확대됨으로써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더 다양하고 많은 체육 관련 사업을 유치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흥국생명에서 뛴 당시 김연경의 모습. (한국배구연맹 제공)

‘김연경 복귀’에 배구계도 들썩 “V리그 흥행에 큰 호재 될 것”

‘배구여제’ 김연경(32·흥국생명)의 국내 복귀에 배구계도 들썩이고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을 비롯해 배구 관계자들은 11년 만의 V리그 복귀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흥국생명은 지난 6일 김연경과 연봉 3억5000만원에 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008-09시즌 V리그를 떠나 일본, 터키, 중국 무대에서 활약했던 김연경은 10여 년 만에 다시 핑크색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게 됐다.

5개 구단에서 사실상 ‘1강’으로 군림하게 된 흥국생명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연맹 관계자는 “김연경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라며 “전체적인 리그 흥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연구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배구는 현재까지 팀보다는 선수들에 대한 팬덤이 강하게 형성된 종목”이라면서 “김연경의 스타 파워는 엄청날 것이다. 리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들도 김연경, 이다영, 이재영이 한 팀에서 뛰게 되면서 흥국생명

이 일방적인 독주를 할 것이라 예상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었다.

한 구단 관계자는 “경기는 해봐야 한다”며 “예전 김연경과 황연주 등이 함께 뛰었던 흥국생명이 막강 전력이라고 했지만 GS칼텍스에 (챔피언에서) 패했다. 걱정하는 것처럼 매 경기 일방적인 게임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나친 독주 체제가 될 경우 장기적인 흥행에는 여파가 있을 것이라 의견도 있었다. 예전 2000년대 초중반 실업배구 시절 삼성화재가 김세진, 신진식 등 선수 싸움으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을 당시의 이야기를 꺼냈다.

다른 관계자는 “(김연경의 코트 복귀) 일시적인 흥행에는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너무 한 팀이 강하면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밖에 없다. 예전 남자부 삼성화재가 너무 강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된다. 일방적인 경기는 흥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흥행적인 부분을 떠나 경기력 면에서는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도 있었다.

연맹 관계자는 “어렸을 때부터 김연경을 바라보며 컸던 어린 선수들에게는 분명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팬 없으면 홈도 의미 없어”...무관중 K리그, 홈승률 절반도 안 돼

홈 팬 일방적 응원엔 전력 이상 경기력 발휘...홈팀 승률 K리그1 48%·K리그2 32% 불과



무관중으로 진행 중인 K리그에서 홈 팀 승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6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 울산 현대와의 경기 끝난 뒤 승리팀 조현우가 상대 선수를 위로하는 장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관중 없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 K리그에서 홈팀 승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홈팬들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9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올 시즌 K리그1(1부리그) 12개팀 홈 경기 승률은 48.3%, K리그2(2부리그) 10개팀 홈 경

기 승률은 32.0%에 그쳤다.

축구에서 홈 구장을 사용하는 것은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 홈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전력 이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도 한국은 홈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 4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낸 바 있다. K리그에서도 그동안 홈 팀들이 안방에

서 나름 성적을 냈다. 연맹에 따르면 지역 연고제가 정착된 1987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총 7845번의 경기를 분석한 결과 홈팀이 승리를 거둔 경기는 3213회, 무승부는 2084회, 패한 경기는 2548회로 집계됐다. 이에 연맹은 승리를 1승, 무승부를 0.5승으로 계산한 결과 홈팀의 승률은 54.2%가 나왔다.

지난 시즌 K리그에서는 총 228번 경기가 펼쳐져 홈팀이 90번 승리를 하고, 무승부는 67회, 71번 패배하면서 홈팀 승률은 54.2%를 기록했다. K리그에서 홈팀 승률은 50.5%였다.

하지만 올 시즌 관중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홈팀의 승률은 예전 같지 못했다. 지금까지 치러진 K리그1 30경기에서 홈팀은 10번 이겼고, 9번 무승부, 11번 패하면서 승률은 48.3%에 그쳤다.

K리그2는 홈팀 승률이 더 떨어졌다. 총 25번의 경기에서 홈팀이 이긴 경기는 단 4차례에 불과했고, 13번이나 홈팀이 졌다. 무승부는 8차례 나왔다. 이로써 K리그2 홈팀 승률은 32%에 머물렀다.

한편 K리그1 선두 전북 현대와 K리그1 5위를 마크 중인 상주 상무는 K리그 22개 팀을 통틀어 유일하게 홈에서 펼쳐진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